

서서히 모습 드러내는 '출판 메카의 꿈'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발표

국내 유수의 출판사와 인쇄소, 서점 및 유통센터들이 가득차 있는 '출판단지' 중심에 '수정의 탑'과 '돛형의 구조물'이 우뚝 솟은 대규모 문화공간이 있다. 한강이 시원스레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수로를 통해 다른 시설들과 연결되어 있어 운치를 더한다. 연일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회가 열릴 뿐 아니라 한국 출판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살필 수 있는 출판·인쇄박물관이 자리해 일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통일동산이 인접해 있고 남북한이 모두 가까워 남북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안성맞춤. 이곳에서 펼쳐지는 통일한국의 문화행사도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첨단정보센터와 출판인을 위한 교육센터,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숨쉴 수 있는 숙박시설은 이 문화공간이 지닌 또 하나의 자랑이다.

이 환상적이고도 첨단화된 문화공간은 아직은 우리에게 꿈이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될 날이 그리 멀지만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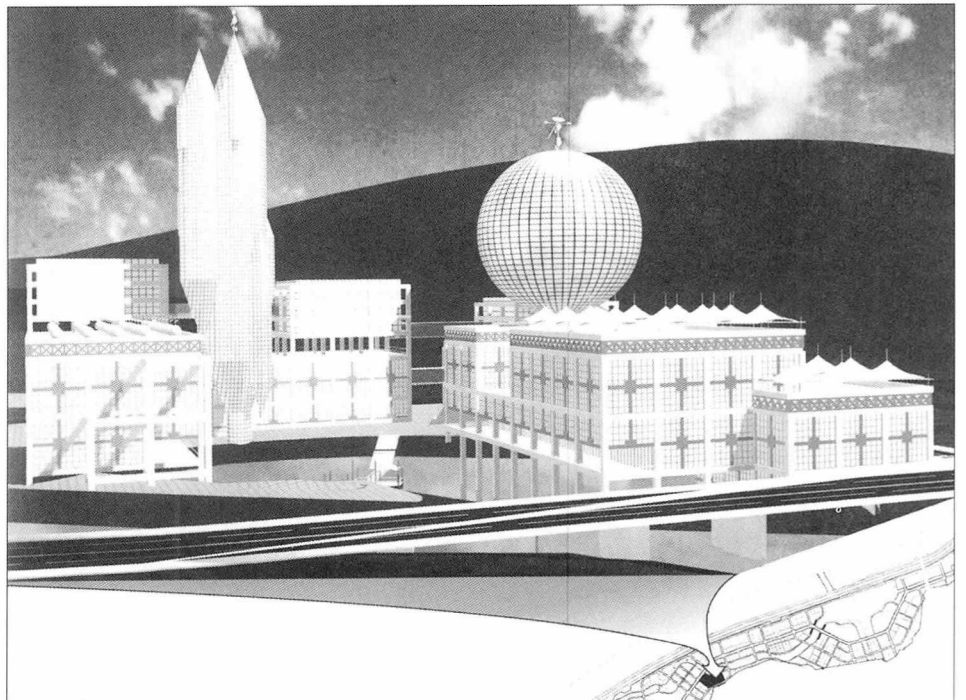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최근 출판단지내 핵심시설로 자리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칭)의 건립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출판단지)내에 들어설 시설물의 건립계획안으로는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 조합측은 99년 준공 예정인 단지내 다른 시설들과의 공사일정에 맞추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도 2001년 개관할 예정이다.

출판단지의 핵심 시설

생산단지, 유통센터 등과 함께 출판단지의 노른자위인 문화시설 부지에 자리하게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출판단지의 기능과 역할을 중추적으로 수행하게 될 '상징적' 시설이다. 총부지 5,452평에 건축면적 8,500평 규모로 문화전시의 장, 문화정보의 장, 문화교육의 장 등 세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문화전시의 장에는 컨벤션센터와 이벤트홀, 전시장 및 박물관이 들어서 국제 규모의 문화행사와 모임, 각종 전시와 공연 등이 끊이지 않는 살아 있는 문화공간으로 기능한다.

우리 민족의 정보자료센터, 정보교류센터, 정보전산센터, 번역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발한 출판단지 건설사업은 최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 발표를 계기로 한층 구체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문화산업의 메카를 건설하는 작업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조감도.

문화정보의 장은 이름 그대로 우리 민족의 지적·문화적 자산을 정보화하고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출판연수원이나 연구소 숙박시설 등을 두루 갖춘다는 계획이다.

출판단지 문화시설분과위원장인 김언호 사장(한길사)은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는 문화의 울산공업단지나 경부고속도로라고 보면 된다"고 요약하고, 이 공간이 열악하고 낙후한 우리나라 출판환경을 획기적으로 쇄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닌 문화자산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세계에 알리고, 남북간 문화교류의 창구로 활용해 남북한의 문화통일을 앞당기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출판단지측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지니는 이러한 공공적 역할과 기능 때문에 건설비용을 민간자본에 떠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 총 소요예산 300억원 가운데 부지 비용에 해당하는 50억원은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250억원은 국고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재정경제원에 1998년 설계용역비 8억2천만 원을 요청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필두로 음악·연극·미술·국악·영화 등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업계 대표들은 최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

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오랜 숙원이던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완료한 출판단지는,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공사실시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인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출판단지가 거쳐야 할 절차는 건설교통부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가 실시하는 대규모개발사업 심의와 환경·교통·인구 영향평가가 남아 있다.

출판단지, 실시계획 승인 절차만 남아

이밖에 출판단지 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청취와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도 남겨두고 있다. 올 하반기 중에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공식 행사를 갖고 늦어도 98년말에는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조합의 계획이다.

공사기간 중 일종의 모델하우스가 될 시범단지를 만들어 희망자를 우선 입주시키려는 계획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출판계 공동출자로 설립, 사전정비 작업을 진행중인 한국출판유통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유통센터와 각 단일업체들의 사옥이 준공되는 시점은 99년 12월. 문화시설에 들어서게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2001년에 완공됨으로써 출판단지 부지 총48만평 가운데 23만평에 해당하는 1단계 공사가 끝난다. 사실상 진행이 늦춰진 2단계 사업부지에는 각종 첨단산업 및 영상·만화 등 문화정보산

업 관련업체들이 들어설 예정.

출판단지의 유도열 상무는 "출판단지 건립이 계획과는 달리 자꾸 늦추어진다는 조합원들의 걱정과 비판이 많다"고 밝히고 "출판단지사업이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실시되는 방대한 사업인 만큼 조합측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저간의 사정을 설명한다. 실제로 출판단지 개발사업에는 정부의 모든 행정부처가 관련을 맺고 있다. 농림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통일원, 문체부, 통상산업부 등 많은 부처들과 의견조율을 해야 하는 만큼 어려움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기웅 조합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단지는 단지 출판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조합원 및 업계 관계자들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출판단지 건설사업을 지켜봐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89년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발한 출판단지 건설사업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안 발표를 계기로 한층 구체적인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문화산업의 메카를 건설하는 작업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실현을 보고 싶은 마음은 바쁘기만 하다. 1995년 10월 10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라 이름을 얻은 출판단지 부지에는 지금 성토공사가 한창이다.

— 박남정 기자